

국별 리포트

말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240천 km ²	G D P	98억 달러 (2010년)
인구	15.4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636 달러 (2010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495 (2010년)

- 아프리카 북서부의 내륙국인 말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 7위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15.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알제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와 접경하여 사하라사막 및 사헬지대에 위치해 있음.
- 1인당 GDP가 636달러에 불과하고, UN 인간개발지수가 169개국 중 160위에 그치는 등 세계 10대 최빈국에 포함되며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23년간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하였으나, 1992년 민정이양으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현 아마두 투레 대통령은 대선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 전망

- 2008~09년 말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산물인 금의 국제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 4~5%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0년에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농업 생산성도 향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2011년에도 금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철광석 개발프로젝트의 완공으로 철광석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성장률은 5% 중반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한정된 세수기반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2004~08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연평균 5.5% 수준을 기록함.
- 2009~10년에는 금 가격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GDP 대비 3.5%, 2.9%로 축소되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4.3	5.0	4.4	5.1	5.4
재정수지/GDP	-7.0	-3.9	-3.5	-2.9	-6.6
소비자물가상승률	1.5	9.1	2.2	2.1	4.5

자료: IMF

- 2011년에는 경기부양 및 2012년 대선을 위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GDP 대비 6%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 2008년에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대로 치솟기도 하였으나, 2009~10년에 농업 생산성이 상승하여 식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2.2%로 안정되었음.
- 2011년에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어 소비자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코트디브아르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수송비 증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중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말리는 아프리카 북서부 내륙에 위치해 있어 해안에 접해 있는 코트디브아르를 무역 통로로 이용하고 있음.

* 말리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국가(모리타니,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등 15개국)들의 화폐단위인 CFA franc을 사용하고 있으며, CFA franc은 유로에 대해 고정환율제(CFA franc 655.96=EUR1)를 적용하고 있어 경제 전반이 달러 대비 유로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

2. 경제구조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1999년 금 개발을 위한 법령 제정 이후 금을 비롯한 광업 분야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업 등 1차 산업이 여전히 GDP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 변동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07년): 농업 36.5%, 광업 및 제조업 24.2%, 서비스업 39.1%

- 말리는 2005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제 2위의 면화 생산국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기후 변동과 미국·유럽의 생산보조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면화 수출액이 2004년의 350백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46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 생산농가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면화의 국제 가격이 30년 사이에 kg당 3달러에서 0.39달러로 폭락하였으나, 비료 가격은 오히려 약 80% 상승하여 말리 내에서 목화 생산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어 최근 농업 부문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임.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도로, 식수, 보건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2년 아프리카 컵 축구대회(African Nations Cup)와 2005년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France-Africa Summit) 개최를 계기로 도로 개선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최근 휴대폰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2005년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 휴대폰 가입자 수(100명 당): 12명('06) → 20명('07) → 27명('08) → 29명('09)
 - 인터넷 사용자 수: 9만 명('06) → 10만 명('07) → 20만 명('08) → 25만 명('09)

□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 총 인구의 약 70%가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200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식자율이 26%에 불과하고, 15~24세 여성의 식자율이 31%, 15~24세 남성의 식자율이 47%로 추정되는 등 말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음.
- 원조공여국의 요구로 정부가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쓴 결과, 초등교육 입학률이 1991년 21%에서 2009년 73%로, 중등교육 입학률이 1991년 5%에서 2009년 30%로 높아졌으나, 총 인구의 약 2%만이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숙련된 노동인력을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말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에 이은 아프리카 제3위의 금 생산국임. 금은 추정매장량이 약 600 - 800톤이며 대부분이 서부, 남부 지역(Bougouni)에 집중되어 있음.
- 망간, 동, 리튬 등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그간 경제성이 낮아 포기했던 석유의 탐사 작업을 재개하는 등 자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및 World Bank의 지원 아래 경제개혁 추진 중

- 말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World Bank의 지원 하에 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정부가 IMF의 2004~07년 PRG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008~11년 PRGF 프로그램(45.7백만 달러 규모)을 지원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동 프로그램의 증액(40백만 달러)을 승인받았음.

- 또한 정부는 5개년(2007-2011) 개발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목표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공공 분야의 구조개혁, 사회복지 분야의 개선 등임.
- PRGF과 PRSP의 일환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2010년에 국영 통신업체인 Societe des telecommunications du Mali (Sotelma)의 민영화를 완료 하였으며, 면화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국영기업인 Compagnie Malienne pour le Developpement des Textiles(CMDT)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적자기조 지속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숙련 노동력 부족, 열악한 인프라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추세임.
- 2008년에는 국제 식품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2.3%인 1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에는 농업 생산성 증가로 상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GDP의 7.2%로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상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4%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7%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금을 비롯한 광업 분야에 대한 FDI 유입에 힘입어 2007년 10억 9천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16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외채잔액 증가 추세

- 외채규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GDP의 100%를 초과하는 등 과중하였으나, 2003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과 2005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통하여 외채를 대규모로 탕감받아 2005년 30억 달러(GDP 대비 56.4%)에서 2007년 20억 달러(GDP의 27.8%)로 감소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581	-1,066	-645	-724	-799
경 상 수 지 / GDP	-8.2	-12.3	-7.2	-7.4	-7.3
상 품 수 지	-290	-639	-194	-310	-242
수 출	1,556	2,097	1,889	2,071	2,700
수 입	1,846	2,736	2,082	2,380	2,942
외 환 보 유 액	1,087	1,072	1,605	1,292	..
총 외 채 잔 액	1,985	2,190	2,482	2,860	3,234
총 외 채 잔 액 / GDP	27.8	25.1	27.7	32.2	33.3
D . S . R .	2.9	3.4	3.6	3.2	2.0

자료: IMF, EIU, OECD

-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IMF의 PRGF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외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 GDP 대비 외채 비중이 32.2%를 기록하였음.

III.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혼란 전망

- 2002년에 자유 민주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아마두 투레 (Amadou Toumani Toure)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이브라힘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에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하였음.
- 아마두 투레 대통령은 정치지배구조(good governance)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계 각층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음.

- 2012년에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아마두 투레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아마두 투레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Adema(Alliance pour la democratie au Mali)에서도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열악한 생활환경

- 201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말리는 총 169개국 중 160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하고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50명으로 세계 4위이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94명에 달함.
-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사막 건조지대인 사헬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가뭄, 사막화 등으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식량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음.

□ 정부군과 투아레그 반군 간 분쟁 지속

- 말리 북동부의 키달(Kidal) 지역에서 정부군과 투아레그(Touareg) 반군 간에 교전이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이 인근국가인 부르키나파소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2008년에 알제리의 중재 하에 양측이 말리 북부 지역의 적대행위 중지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교전이 지속되었음.
- 정부가 반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리비아, 모리타니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분쟁은 지속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 강화

- 말리가 사하라 지역의 테러 방지를 위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부상하면서 협력 관계(Trans-Sahara Counterterrorism Partnership)를 맺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은 말리에 군대를 주둔시켜 말리군을 훈련시키는 등 지역안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말리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관리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음.

□ 주변국가와는 이슬람 무장세력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 등 사하라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이 확장되자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등의 주변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모리타니와는 공동으로 군사 작전을 운영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와의 군사 협력도 유력시되며, 알제리와의 군사 협력도 모색하고 있음.

□ 리비아와의 관계에 불확실성 대두

- 정부가 북부 지역의 투아레그 반군에 공동 대응하고자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리비아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관계에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음.
 - * 투아레그 반군은 말리 북부, 모리타니, 니제르, 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유목민 부족임. 투쟁 목적은 말리, 니제르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자신들 거주지역의 자원(특히 니제르의 우라늄)을 개발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분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1년 3월 AQIM이 리비아 무기고의 미사일을 훔쳐 말리의 사하라 사막의 은신처로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지역 안보에 불안이 가중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HIPC Initiative, MDRI를 통한 채무탕감

- 2003년에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외채 675백만 달러를, 2005년에는 IMF와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로 20억 달러를 각각 탕감받은 바 있음.
- 대외원조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최근 3%대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 ECA 앞으로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단기외채의 0.5%, 중장기외채의 3.0%를 연체 중임.
 - 단기 외채잔액 19.1백만 달러 (연체잔액 0.1백만 달러)
 - 중장기외채잔액 46.1백만 달러 (연체잔액 1.4백만 달러)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2009. 10)	6등급(2010. 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년 9월 27일 (북한과는 1960. 10. 31)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200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11)
- 2011년 7월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7,320만 달러 규모임.
- 주요 수출품은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총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벙커C유를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임.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수출규모에 따라 총 수출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 2009년 대 말리 수출은 1억 3,72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477만 달러에 불과함.

- 해외직접투자(2011년 6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건 5,036천 달러

<표 3>

한·말리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1~7월)	주요품목
수 출	137,204	4,765	4,039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전선
수 입	10,022	92,429	69,140	석유제품, 제지인쇄기계
합 계	147,226	97,194	73,179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제 3위의 금 생산국인 말리는 광물자원의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 위주의 저개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1인당 GDP가 636 달러에 머무르고 있음.
- 2011년에는 금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철광석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나, 대선 준비 등의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출범한 투레(Toure)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와 미국과의 우호 관계 아래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이 지속되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부군과 투아레그 반군 간의 빈번한 교전과 이슬람 무장단체의 세력 확대가 사회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고,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주변국의 정치 불안도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이현정 (☎02-3779-5724)

E-mail: lhj036@koreaexim.go.kr